



10 월의 사양관리

축산과학원 낙농과학과

일반 사양관리

아침 이슬이 내리고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송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바람직한 축사환경 관리를 위해 낮에는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고, 항상 통풍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한다.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는 원유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기 관리에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기온이 저하되는 이 시기에는 원유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원유냉각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또한 착유기 부품을 점검해 보고 원유 여과망도 점검하여 양질의 원유가 유지 되도록 한다. 지난 여름 수

고하여 담아두었던 옥수수 사일리지를 이용하는 시기이면서 월동용 조사료인 벣짚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벣짚의 영양적 사료가치는 적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조사료원 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하되, 비를 맞으면 기호성과 영양분이 크게 떨어지므로 벣수확 직후 최대한 비를 맞히지 말고 잘 말려 신속히 수거하고 반드시 비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은 창고 등에 보관한다. 또한 암모니아 처리 및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어 벣짚의 보관성 및 사료가치를 높여 벣짚의 부패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의 생산성을 높인다.

사양관리

여름철 고온기에 높여 주었던 영양소 수준을 계절이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주변의 컨설턴트나 사료회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각 농장의 실정에 적합하게 배합비를 조정해 준다. 그러나 조사료 종류와 농후사료를 변경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경하여 갑작스런 사료변경으

로 인한 장애를 예방한다. 특히 분만 3주전부터 분만후 3주까지의 전환기 동안에는 사료관리에 유의함으로써 대사성 질병의 예방과 생산성 극대화가 되도록 한다. 우유중 요소(MUN)의 수준을 유지방이나 유단백과 비교해 보면 젖소가 현재 영양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MUN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젖소에게 단백질의 급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MUN은 분해 및 용해가 가능한 단백질과 사료중 탄수화물의 형태

와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개체별 MUN값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소에 따라 단백질 과잉 또는 부족을 나타내므로 전체적으로 급여하는 사료 단백질의 양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MUN 값은 12~18mg/dl이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MUN값이 18mg/dl 이상이 되면 번식장애가 야기된다고 하므로 단백질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준다.

그리고 육성우는 목장에 당장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차기 낙농소득원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육단계별 적정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육성우는 월령보다는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첫 종부를 시키는데 종부에 알맞은 체중은 340~360kg이다. 적당한 사양관리에 의하여 생후 14~15개월령에 체중이 350kg 전후로 도달하게끔 육성하여 종부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방역 및 위생관리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MD),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등은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자주 발생되므로 축사내 환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호흡기 백신을 송아지에게 실시한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MD)은 급성, 만성으로 전염병으로 식욕감퇴, 설사, 탈수, 호흡기 증상, 구강염, 발열(39.5~42°C), 유·사산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으로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소 전염성비기관

염-파라인플루엔자-3 바이러스의 3종 혼합예방약이 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은 접촉 및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며, 주요증상으로는 식욕부진과 유량 감소, 열(39~40°C)이 있고, 호흡기관과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책으로는 병에 걸린 가축은 격리 수용하고 오염된 축사를 소독하고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질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깨끗하고 청결한 축사관리 및 정기적인 소독실시에 최선을 다한다.

(자료 : 가축위생과 질병-소질병, 농촌진흥청, 2002)

초지 및 사료작물

초지는 월동준비를 위해 방목은 초순까지 마치고 마지막 청소베기를 실시하며, 초지 및 호맥의 초장이 10~15cm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모작으로 재배한 유채나 연맥 등 사료작물은 양질의 조사료로 수확량이 최대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미 수확된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조 등은 보관 및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한다. 옥수수 사일리지를 개봉하여 이용할 경우, 사일리지는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2차 발효가 시작되므로 배출면을 수직이 되게하여 공기가 사일리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용한 후 비닐로 잘 덮어 두어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 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에 사용된 각종 기계장비는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정비하여 창고에 보관한다.